

2026 03  
제254호



대덕라이프 QR



대덕구 카카오톡 채널 QR

# 대덕 라이프

내 일상이 즐거운 대덕구



2025년 대덕구 사진공모전 수상작  
하트-권오상작

# 대덕 라이프

내 일상이 즐거운 대덕구

대덕라이프 제호 서체 : 글고운 캘리그래피 박진희 作

- 03 구정소식
- 05 십자말풀이, 대덕의 역사문화를 찾아서
- 06 대덕구 맛집을 찾아서
- 07 대덕구 부서를 소개합니다
- 08 열린의정
- 10 [대덕구기관장협의회] 손동완 K-water 대청댐지사장
- 11 [단체 인터뷰] 대덕구축구협회
- 12 대덕톡톡

**70여 년 만에 전하는 감사...**  
**6·25 참전유공자 무공훈장 유족 전수**

무공훈장 찾아주기 사업 일환...  
 고(故) 허곤 유공자 공적 기려

**대전운수,**  
**대전 대덕구에 교통카드 기탁**

400만원 상당...  
 차상위 계층 중·고등학생에게 전달 예정

**대덕브라운스톤 어린이집,**  
**회덕동에 이웃 사랑 실천**

원아·학부모·교직원 참여...  
 설 명절 앞두고 쌀·라면 등 후원물품 기탁

**우리기술(주)**  
**지역 인재 육성 성금 500만원 기탁**

저소득 성적 우수 학생 대상  
 '대덕인재육성사업' 장학금 지원

**진성라이너·진성피스톤,**  
**덕암동 어려운 이웃돕기 성금 전달**

저소득 가정 대상 100만원 기탁

**송촌엘리프어린이집,**  
**“따뜻한 명절 보내세요”**  
**송촌동에 생필품 전달**

원아·학부모·교직원 참여 나눔 실천...  
 쌀·라면·화장지 등 생활필수품 전달

발행인 대덕구청장  
 편집인 미디어홍보과장  
 발행처 미디어홍보과(TEL:608-6606)  
 주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오정동)  
 홈페이지 www.daedeok.go.kr  
 발행일 2026년 3월 3일(제254호)



## “소상공인 여러분 힘내세요” 2026 대덕뱅크 시행

**최대 2000만원 한도 내 지원  
초기 창업자 금융 접근성 제고·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대전 대덕구는 경기침체로 자금 운용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상공인 대출지원사업 ‘2026 대덕뱅크’를 시행한다.

대덕뱅크는 업체당 최대 2000만원 한도 내에서 대출을 지원하고, 대출 이자 연 3%와 신용보증 수수료 연 1.1%를 2년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대덕구에 사업장을 두고 3개월 이상 정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다. 보증드림 앱 또는 하나은행 앱을 통해 선착순으로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사업에 청년 소상공인을 위한 별도 지원 자금을 배정해 초기 창업자의 금융 접근성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례 보증 지원

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대덕구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회덕동(장동)~상서간 도로 개통 교통 단절 해소 박차

**1만 3000여 명 주민 이동 편의 개선  
낙후 지역 연결 통해 생활환경 확대·도시 기능 회복 기대**

대덕구가 오랜 기간 단절돼 있었던 회덕동(장동)과 상서동을 잇는 도로를 개통하며 지역 교통 여건 개선에 나섰다.

해당 지역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으로 개발이 제한되면서 교통과 생활 인프라가 뒤쳐져 왔다. 이에 대덕구는 2021년부터 총사업비 96억원을 투입해 연장 1.0km, 폭 10.0m 규모의 도로를 조성했다.

이번 도로 개설 공사를 통해 약 1만 3000여 명의 주민의 이동 편의성 개선은 물론, 단절된 지역을 연결하고 정체돼 있던 생활 기반과 도시 기능을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산모회복비 최대 50만원 지원

**출산 후 6개월 이내 신청 가능  
산후조리·진료비·약제비 등 폭넓게 지원**

대덕구가 출산 이후 산모의 건강 회복을 돕기 위해 ‘산모회복비 지원 사업’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이어간다.

구는 출산 이후 산후조리와 건강관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산모 1인당 최대 50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대덕구에 출생신고를 하고 현재 대덕구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로,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지원 항목은 △산후조리원 이용 비용(공공 산후조리원은 최대 90% 범위 내 지원) △출산 후 사용한 병·의원 및 한의원 진료비와 검사비 △출산 후 사용한 약국 약제비 및 한약 구매 비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 이용 시 본인부담금(90%) 등이다. 단, 출산



온라인 신청



과 직접 관련된 의료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산모 명의 통장 사본 △산모회복비 사용 영수증 등을 지참해 대덕구보건소를 방문하거나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대덕구보건소 관계자는 “출산 이후 산모의 회복은 가정의 안정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라며 “산모회복비 지원이 산후조리와 건강관리에 드는 실질적인 비용 부담을 줄이고, 나아가 아이 키우기 좋은 대덕구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대덕구보건소 건강정책과(☎042-608-5408, 5481)로 문의하면 된다.



## 계족산 임도 초입 공영주차장 조성 완료

죽림정사 인근 50면 규모...  
주차 불편 해소·안전한 등산 환경 조성

대덕구가 연축동 27-1번지 일원, 계족산 죽림정사 인근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해 주차 여건 개선에 나섰다.

해당 지역은 주차 공간 부족으로 불법 주·정차와 교통 혼잡이 잦았던 곳으로, 구는 총 50면 규모의 공영주차장을 조성했다.

이번 주차장 조성을 통해 등산객과 인근 주민의 주차 불편 해소는 물론, 안전하고 쾌적한 등산 환경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덕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주민들의 주차 편의 향상을 위해 공영주차장 확충과 시설 개선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말했다.

## 반려동물과 함께 뛰는 도시... 반려동물 놀이터 개장

덕암야구장·신탄진휴게소 등 2곳 운영  
대형·중소형견 구역 분리 조성  
오는 16일 덕암야구장 놀이터 개장식 개최

대덕구가 반려인과 반려동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반려동물 놀이터 2곳을 운영한다.

운영 기간은 3월 9일부터 11월 30일까지이며, 덕암야구장 반려동물 놀이터 개장식은 오는 16일 오후 2시에 개최될 예정이다.

운영 장소는 ▲덕암야구장 반려동물 놀이터(덕암동 199) ▲신탄진휴게소 반려동물 놀이터(상서동 377) 등 2곳이다. 대형견과 중·소형견 구역을 구분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이용 편의를 높였다.

운영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계절과 기상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될 수 있다.

신탄진휴게소 반려동물 놀이터는 매주 월요일과 화요일 휴무이며, 덕암야구장 반려동물 놀이터는 연중무휴 운영된다.

이용 대상은 동물 등록이 완료된 반려견이며, 무료로 입장할 수 있다. 구는 반려동물 놀이터 운영을 통해 반려인과 반려동물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반려동물 놀이터 운영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대덕구 농생명정책과 (☎042-608-6953)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 대사증후군 무료 검사로 만성질환 예방

구민 대상 연 1회 검사... 사전 전화 예약제로 운영  
혈당·혈압·지질 검사 등 포함... 조기 발견·상담 지원 앞장

대덕구가 대사증후군 조기 발견을 위해 구민을 대상으로 남부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무료 검사를 실시한다.

대사증후군은 복부비만, 고혈당, 고혈압, 낮은 HDL 콜레스테롤, 높은 중성지방 등 심뇌혈관질환 위험 요인 중 3가지 이상을 동시에 보유한 상태를 말한다.

이번 검사는 1인당 연 1회 무료로 진행되며, 공복혈당을 비롯해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고밀도지단백(HDL), 저밀도지단백(LDL), 혈압, 허리둘레 등 대사증후군 관련 주요 항목을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6개월 이내 국가건강검진 결과지를 지참할 경우, 기존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맞춤형 상담을 바로 받을 수 있다.



검사는 사전 전화 예약제로 운영되며, 평일 오전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접수한다. 예약 후 신분증을 지참해 남부건강생활지원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검사 전에는 6시간 이상 금식이 필요하다.

대덕구 관계자는 “대사증후군은 초기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이번 무료 검사를 통해 주민들이 자신의 건강 상태를 정확히 알고 예방에 나설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주민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사증후군 무료 검사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대덕구 남부건강생활지원센터(☎042-608-5414)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대덕라이프 2026년 3월호(254호)  
십자말풀이 정답입력



접수기간 2026년 3월 1일(일) 오전 9시 ~ 3월 16일(월)  
오후 11시 30분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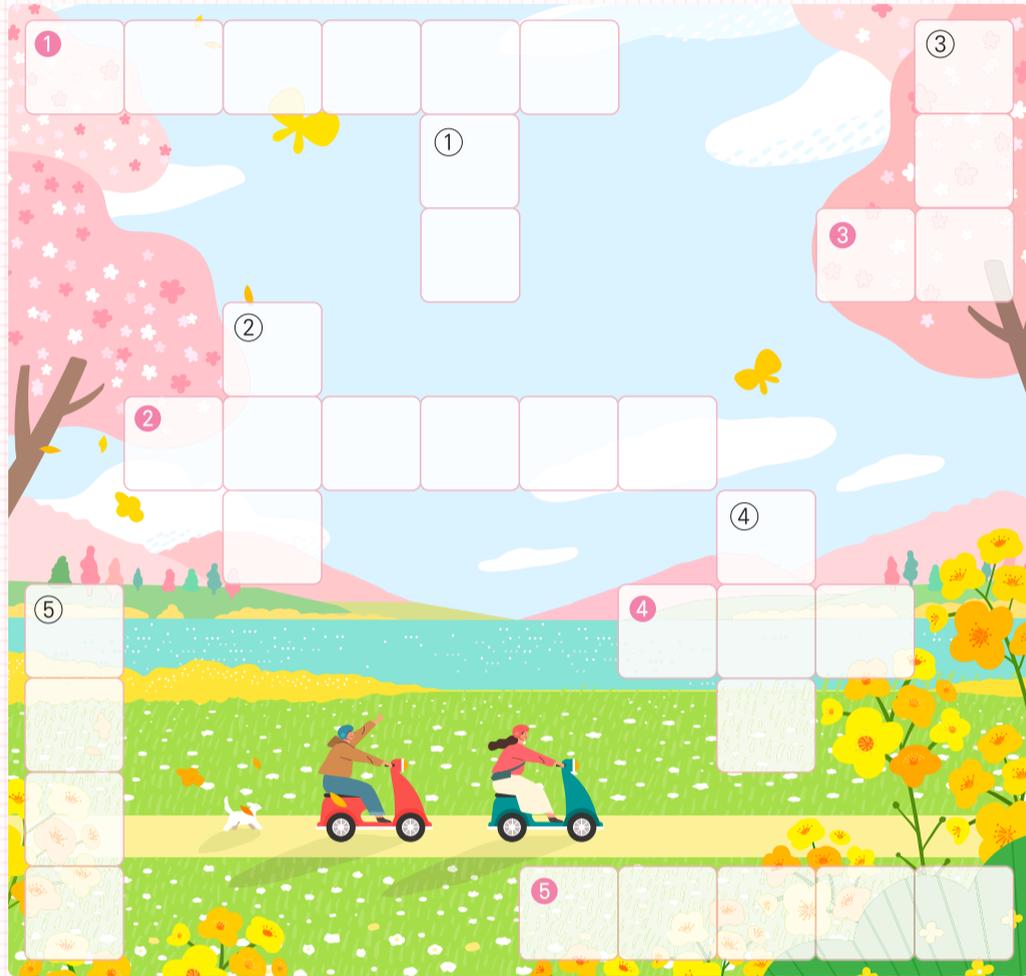
참여방법 십자말풀이 정답을 작성하여 제출(1인 1회)

당첨자 발표 개별 문자 안내

정답을 맞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무작위 추첨을 통해 기프티콘을 선물해 드립니다.  
정답 제출 이후에는 답안 수정이 불가하오니, 제출 전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십자 말풀이



대덕라이프 십자말풀이 이벤트는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취득하며, 수집된 개인 정보는 당첨 및 선정 확인 등 이벤트 운영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 됩니다.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에 동의하실 경우에만 참여 부탁드립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 : 이벤트 당첨 및 선정 확인
2. 개인정보 수집항목 : 성명, 전화번호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한 개인정보는 이벤트가 종료된 후 1년간 보관 후 파기합니다.
4. 개인정보 수집 동의 거부권리 : 이벤트 당첨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동의를 거부할 경우 당첨이 취소됩니다.
5. 상품 받으실 분의 개인정보 오류나 부재 등으로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당첨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문의 대덕구 미디어홍보과(☎042-608-6606)

## 가로퀴즈

- 1 대덕구의 대표 축제로 오는 4월 개최하는 대청호에 빛 경관을 조성하고 공연, 전시, 체험을 연계하는 축제의 이름은?
- 2 대덕구 중리동에 위치한 전통 시장으로, 지난해 9월 주차난 해소를 위해 제3공영주차장이 준공된 이 시장의 이름은?  
힌트 : 대덕라이프 2월호 3면을 참고하세요.
- 3 명사, 어떤 대상에 대하여 배우거나 실천을 통하여 알게 된 명확한 인식이나 이해. 알고 있는 내용이나 사물.  
힌트 : 각 분야에 대한 그의 해박한 ○○은 이미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 4 명사, 높이는 2~3미터로 이른 봄에 잎보다 먼저 노란 꽃이 피고 9월에 삭과(蒴果)인 열매를 맺는 식물의 이름은?
- 5 명사, 3월 14일에 남성이 마음에 둔 여성에게 사탕 따위를 선물하며 사랑을 고백하는 날.

## 세로퀴즈

- 1 명사, 축하하는 뜻을 나타내기 위하여 내는 돈.
- 2 명사, 요리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
- 3 명사, 입학할 때에 신입생을 모아 놓고 행하는 의식.  
힌트 : 전국 대부분의 초등학교에서 오늘 ○○○이 열렸다
- 4 명사, 갑자기 세차게 쏟아지다가 곧 그치는 비.
- 5 명사, 온갖 중고품을 팔고 사는 만물 시장.  
힌트 : 미국이나 유럽에는 고물이나 중고품을 매매하는 ○○○이 많이 있다.

## 대덕의 역사문화를 찾아서

대전 대덕구는 계족산, 대청호 등 청정 자연환경의 보고일 뿐만 아니라 수많은 유·무형 문화재를 보유한 한밭 정신문화의 발상지이기도 하다. 대덕의 역사에 새겨진 위대한 인물들의 삶과 업적을 살펴봄으로써 지역 대덕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해 보고자 한다. 역사인물은 가나다순으로 소개된다. <편집자주>

## 06 | 송계간(宋啓幹)

송계간은 조선 후기의 문신학자로 호는 추양(秋陽)이고, 본관은 은진이다. 송계간은 1764년 아버지 목사 송시연과 어머니 평산 신씨 사이에서 한양에서 출생해 회덕 송촌 추곡에서 살았다. 그는 어렸을 때 조부 송명흠에게서 학문을 배워 20세에 향시에 응시하면서부터 경전의 깊은 이치를 탐구한 것은 물론 제자백가의 학문도 두루 섭렵했다. 1796년(정조20) 33세에 부사용에 제수된 이후 여러 관직을 두루 거치는 등 학식과 인품이 뛰어났다. 그는 평소 검소하고 검소했으며 이를 자손들에게 친히 가르쳤는데, 그가 죽은 후 옷상자를 열어보니 옷이 없었을 정도였다 한다. 시호는 문경(文敬)이고, 저서로 '추양유고'가 있다. <대덕문화원 참고>



## 추억을 한 입에 담다 대화동 '소담분식'

분식집은 어린 시절의 추억이 고스란히 남아 있는 공간이다. 학교를 마치고 친구들과 둘러 김밥과 떡볶이, 쫄면을 나눠 먹으며 웃음꽃을 피우던 기억을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한다. 대덕구 대화동 골목길에는 그런 아련한 추억을 다시 꺼내주는 분식집이 있다. 바로 소담분식(대표 김현남·장일국)이다.

여느 분식점처럼 김밥과 떡볶이, 라면 등 다양한 분식 메뉴를 갖추고 있지만, 이 집의 가장 큰 특징은 상호 이름처럼 '소담스럽게' 푸짐하고 먹음직스럽다는 점이다.

소담분식의 대표 메뉴는 단연 김밥이다. 밥은 얇게 깔고 계란지단, 당근, 햄, 우엉, 단무지 등 속 재료를 아낌없이 채워 넣어 한 줄만으로도 든든하다. 특히 한입에 넣기 어려울 만큼 실한 크기가 인상적이다. 참치김밥, 제육김밥 등 재료에 따라 다양한 맛을 즐길 수 있는 점도 매력이다.

떡볶이 역시 눈길을 끈다. 보기보다 맵지 않고 달콤한 양념에 떡의 길이와 두께도 적당하고, 무엇보다 쫄깃한 식감이 살아 있다. 특히 별미로 꼽히는 치즈라볶이에는 쫄면 사리를 비롯해 어묵과 떡이 푸짐

하게 들어가 있어 만족감을 더한다. 이 밖에도 쫄면, 제육덮밥, 김치볶음밥, 라면, 잔치국수 등 메뉴 하나하나에 따뜻한 손맛이 담겨 있다. 반찬으로는 직접 담근 겉절이를 내놓아, 분식집이지만 집밥 같은 정취가 물씬 풍긴다.

소담분식의 또 다른 장점은 가성비다. 김밥 한 줄이 3500원으로 부담 없고, 떡볶이·어묵탕·소담김밥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세트 메뉴도 1만2000원에 제공된다. 좋아하는 메뉴를 조합해 먹는 재미와 합리적인 가격까지 두루 만족시킨다.

이처럼 맛깔스러운 분식 메뉴는 30년 요리 경력의 김현남 대표 손맛에서 시작된다. 한식 요리로 잔뼈가 굵은 김 대표는 약 7년 전 이곳에 아담한 분식집을 열었다. 음식의 기본은 식재료라는 신념 아래, 고기를 제외한 재료는 남편 장일국 대표가 매일 농수산물시장에서 직접 구매한다. 청결과 위생 관리에도 각별히 신경 쓰고 있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라도 위생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손님과의 신뢰를 쌓을 수 없다는 것이 김 대표의 운영 철



대덕구 동심1길 30(대화동 35-116)  
0507-1318-1749  
소담김밥 3500원, 참치김밥·제육김밥 각 4500원, 소담떡볶이 4500원, 치즈떡볶이 5500원, 치즈제육덮밥 8500원, 소담라면 4000원, 잔치국수 5500원, 쫄면 6000원, 떡볶이+오뎅탕+소담김밥 세트 1만 2000원  
영업시간 11:00~20:00  
휴 무 일 매주 일요일

학이라고.

김현남·장일국 부부는 “단골손님들이 정겹다며 다시 찾아주시고, 맛있다는 한마디를 건네주실 때 가장 큰 힘을 얻습니다. 학창 시절의 추억을 떠올릴 수 있는 분식집, 오래도록 기억에 남는 동네 분식집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고 말했다.

## 동네에 머무는 따뜻한 빛 대화동 '카페누엘'



카페는 이제 단순히 커피를 마시는 공간이 아니다. 누군가의 하루가 잠시 멈추고, 생각이 쉬어가는 자리다.

대화동 주민복지회관 맞은편, 코너 건물 1층에는 해가 지면 가장 먼저 불이 켜지는 공간이 있다. 카페누엘(대표 신라미) 이야기다.

대화동에서 태어나고 자란 신라미 대표는 그런 공간을 이 동네 한복판에 남겨두기로 했다. 결혼 후에도, 두 아이를 키우면서도, 떠날 수 있었지만 떠나지 않았다.

신 대표는 2019년 10월, 코로나19 팬데믹 직전 카페누엘의 문을 열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의 ‘임마누엘’에서 이름을 따온 이 카페는,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고단한 시기를 지나며 동네의 일상이 됐다.

카페 안으로 들어서면 소박한 나무 테이블과 의자, 감각적인 소품들이 먼저 눈에 들어온다. 커피바 위쪽 작은 책장은 북카페를 연상케 한다. 다락방 같은 구조지만 천장이 높아 답답함은 없다. 혼자 책을 읽기에도, 아이들 생일 파티를 열기에도 무리가 없다. 이곳에서는 어린이와 성인을 위한 베이킹 클래스도 열리며, 동네의 작은 문화공간 역할을 하고 있다. 메뉴 구성도 다양하다. 아메리카노와 카페라테, 에

이드, 스무디, 유자레몬티 등 폭넓은 음료를 갖췄으며, 커피는 큐그레이더(Q-Grader, 커피 감별사)의 관리를 받는 원두를 사용한다.

르뱅 쿠키, 치즈케이크 등 디저트 역시 정성이 남다르다. 밀가루를 사용하지 않고 직접 만들어 건강까지 고려했다.

또한, 카페누엘은 베이킹 클래스 운영에도 힘을 쏟고 있다. 카페협회의와 업무협약(MOU)을 통해 수료증 발급이 가능한 클래스를 진행하고 있다고.

신 대표는 “대화동을 떠나는 분들이 많아 아쉽지만, 모두 더 잘되기 위해 나가시는 거라 생각하면 기쁘기도 합니다. 그래도 정이 많아서인지 마음 한켠이 시릴 때가 있죠.”라고 말했다.

그녀가 이 동네를 떠나지 않기로 한 이유는 의외로 단순하다. 7년 전, 한 주민이 건넨 말 때문이다.

“가로등도 없는 거리에서 밝은 불을 밝혀주는 카페가 생겨서 좋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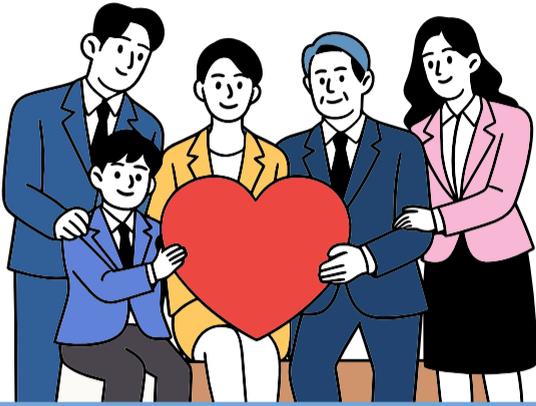
카페누엘은 지금도 그 불을 켜고 있다. 대단하지 않지만 꾸준히, 요란하지 않지만 분명하게. 재개발과 도시재생이라는 큰 흐름 속에서도, 누군가는 이렇게 동네에 남아 불을 밝힌다. 어쩌면 대화동이 아직 따뜻한 이유는, 이런 불빛들이 꺼지지 않기 때문이지 않을까.

대덕구 늘봄1길 27 파낙스빌 1층 (대화동 35-333)  
라미라떼 6,000원, 구름통라떼 6500원, 아인슈페너 6,000원, 아메리카노+르뱅쿠키 9,000원, 바스크 치즈케이크+아메리카노 1만 1,000원, 크와소치샌드위치+아메리카노 1만원  
영업시간 08:00~19:00  
휴 무 일 매주 일요일

# 대덕구 부서를 소개합니다

## 복지돌봄국

### 생활보장과 | 가족친화과



복지돌봄국은 통합돌봄과, 어르신장애인과, 생활보장과, 가족친화과 등 4개 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민의 생활 전반을 촘촘히 살피는 복지 행정을 담당하고 있다. 이번 대덕라이프 3월호에서는 이 가운데 생활보장과와 가족친화과를 중심으로, 구민의 일상 가까이에서 이어지는 복지 서비스를 소개한다.



### 생활보장과

생활보장과는 도움이 필요한 이웃이 제때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각종 급여와 지원을 연계하는 부서다. 국민 기초생활보장제도와 의료급여, 긴급복지, 자활 지원 등을 통해 저소득층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호하고,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맡고 있다.

생활보장과는 생활보장팀, 희망복지팀, 자활의료팀, 통합조사팀, 통합관리팀 등 5개 팀으로 운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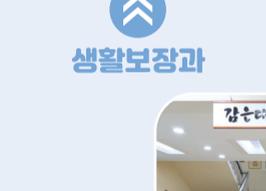
생활보장팀은 생계·교육·주거급여 지원과 임대주택 연계 등 기초적인 생활 안정을 뒷받침하며, 생활보장소위원회 운영을 통해 지원의 적정성을 꼼꼼히 살핀다.

희망복지팀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긴급돌봄과 고독사 예방, 푸드뱅크·푸드마켓 운영 등을 통해 지역사회 안전망을 강화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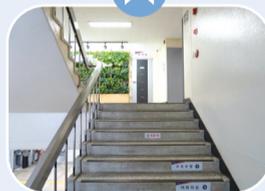
자활의료팀은 의료급여 관리와 자활 사업 지원을 중심으로, 저소득층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 데 힘쓴다.

통합조사팀은 사회보장급여와 교육비 지원 대상 조사를 담당하며, 가구 여건을 종합적으로 살펴 지원의 출발점을 마련한다.

통합관리팀은 급여 자격 변동 사항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며, 수급 가구가 안정적으로 지원을 이어갈 수 있도록 체계적인 사후 관리를 맡고 있다.



생활보장과



가족친화과



### 가족친화과

가족친화과는 여성, 아동, 다양한 가족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폭넓은 가족·아동 정책을 추진하는 부서다. 다문화가족과 한부모가족 지원, 아동 보호체계 구축, 아동친화도시 조성, 민고 맡길 수 있는 보육 환경 조성 등 가족의 삶 전반을 아우르는 역할을 담당한다. 최근에는 저출생 대응을 위한 단계별 인구정책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가족친화과는 여성친화팀, 보육지원팀, 아동친화팀, 아동보호팀, 드림스타트팀 등 5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성친화팀은 양성평등 정책과 여성단체 지원,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한부모가족 지원 등 여성과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보육지원팀은 국공립어린이집 운영과 보육 예산 관리, 어린이집 지도·점검 등을 통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보육 환경을 조성한다.

아동친화팀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중심으로 지역아동센터와 돌봄 시설을 지원하며,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간다.

아동보호팀은 24시간 아동 학대 신고 대응 체계를 운영하며, 위기 아동 보호와 사례 관리를 통해 아동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킨다.

드림스타트팀은 취약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맞춤형 사례 관리와 돌봄 서비스를 연계해, 아이들이 건강한 출발선에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START



건의문

## 대덕세무서 신설 강력 촉구 양영자 의원 “납세 규모, 세정수요에 부응해야”

대덕구의회(의장 전석광)가 대덕구를 관할로 하는 대덕세무서의 조속한 신설을 정부에 강력 촉구했다. 대덕구의 납세 규모와 세정수요에 걸맞은 관할 세무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구의회는 지난 1월 26일 제29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대덕세무서 신규 설치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한 양영자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대덕구의 세무행정 관할은 유성구에 위치한 북대전세무서”라면서 “대덕구민들은 북대전세무서를 방문하기 위해 상당한 시간·경제적 부담을 감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대덕구 납세자 규모와 타 광역시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대덕세무서 신설 당위성을 강조했다.

양 의원은 “북대전세무서를 이용하는 대덕구 사업자는 전체 사업자 수의 34.8%를 차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첨단산업단지 확대와 신규 기업 유치로 인한 세정수요가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 “인구 규모 측면에서 대전이 144만2000명, 광주는 139만4000명으로 대전이 인구 규모가 더 크고 관할 면적 또한 더 넓은 실정임에도 세무서 수는 3곳으로, 4곳인 광주보다 더 적다”며 “2023년 기준 대전의 국세 징수 규모는 19조4856억 원으로 광주의 13조8059억 원보다 5조 6797억 원 더 많다”고 설명했다.

양영자 의원은 “정부는 국민을 위해 쉽고 편리한 납세 서비스를 제공하고 안정적인 세무 행정 시스템 구축을 통해 국가 경제 발전을 뒷받침할 책무가 있다”고 대덕세무서의 신속한 설치를 거듭 요청했다.



양영자 의원



## 지역아동센터 명칭 변경 요구 유승연 의원 “사회적 인식, 과거에 머물러 있어”



유승연 의원

대덕구의회(의장 전석광)가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명칭 변경을 요구하고 나섰다.

구의회는 지난 2월2일 제291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지역아동센터 인식 개선을 위한 명칭 변경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한 유승연 의원(무소속, 회덕·신탄진·석봉·덕암·목상동)은 “지역아동센터는 지역 사회 아동을 폭넓게 지원하는 아동복지시설로 규정돼 있으나, 2011년 이후 우선돌봄아동 비율을 일정 수준 이상 유지하도록 한 운영 기준이 장기간 적용되며, 특정 계층을 위한 시설이라는 인식이 형성됐다”고 밝혔다.

특히 유 의원은 “현재는 우선돌봄아동 비율을 완화하고 일반 아동의 이용을 확대하고 있음에도 지역 아동센터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과거에 머물러 있다”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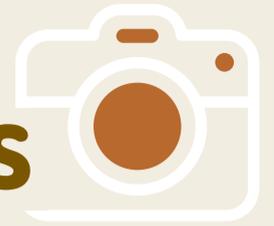
이어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될 경우, 일반 아동 보호자는 점차 지역아동센터 이용을 기피하게 될 가능성이 있으며, 기존 아동도 시설 이용이 특정 기준에 해당한다는 것으로 보일 수 있기에 주변에 이용 사실을 알리기 꺼리는 등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꿈드림’ 사례와 같이 명칭 변경을 통해 인식 개선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며 “법률상 명칭과는 별도로 꿈드림이라는 중의적인 명칭을 사용해, 시설 이용에 따른 심리적 부담을 완화하고 접근성을 높이고 있다”고 말했다.

유승연 의원은 “명칭 변경을 시작으로 센터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고 아동 모두를 위한 돌봄시설이라는 것을 보다 명확하게 전달할 필요성이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 PHOTO NEWS



##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소통 간담회



대덕구의회는 2월3일 대덕구청 대회의실에서 대덕구 대한적십자사봉사회와 소통 간담회를 진행했다. 전석광 의장을 비롯한 양영자 운영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이순화 회장 등 봉사회 임원단으로부터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한편,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 소통했다.

## 적십자 특별회비로 이웃사랑 실천

내 일상이 즐거운 대덕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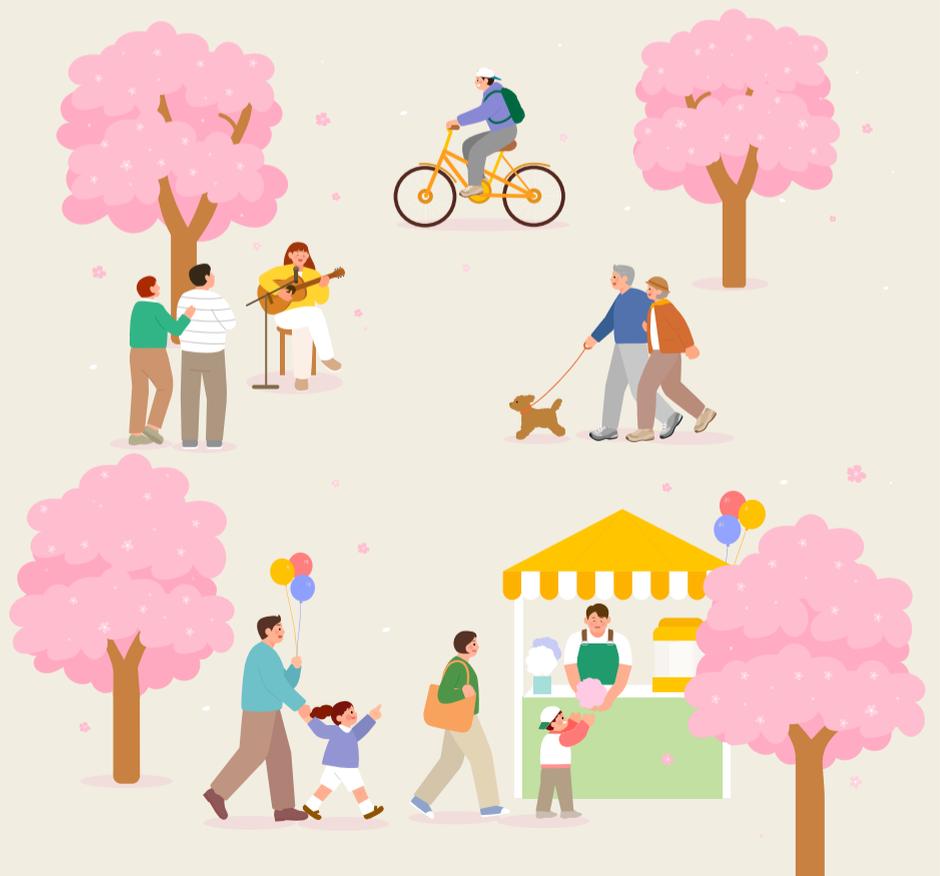


대덕구의회는 1월16일 대덕구청 청렴관에서 열린 대한적십자사봉사회 대덕구협의회 2026 우수봉사자 시상식에 참석해 적십자 특별회비를 기탁했다. 전석광 의장은 의회를 대표해 특별회비를 전달하는 한편, 협의회 소속 우수봉사자에 대한 표창 수여를 했다.

## 설맞이 사회복지시설 격려 방문



대덕구의회는 2월2일 지역 사회복지시설을 격려 방문했다. 전석광 의장을 비롯한 양영자·김기흥·박효서 의원과 의회사무과 직원들은 이날 노인요양시설인 우리쉼터노인요양원과 장애인단기거주시설 가온누리를 각각 찾아 위문품을 전달하는 등 명절 인사를 했다.





# 깨끗한 물은 모두의 삶을 지키는 약속입니다 손동완 K-water 대청댐지사장

500만 충청인의 식수원 대청호, 안정적 물 관리로 일상과 안전 지키  
기후위기 시대, 수질 관리·홍수 조절·스마트 물 관리로 미래 준비  
지역과 상생하는 물 관리... “깨끗한 물은 모두의 책임이자 약속”

대덕구와 맞닿아 있는 대청호는 500만 충청인의 식수원을 넘어, 지역 주민의 휴식처이자 생태·문화의 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와 가뭄, 물 부족 위기 등이 반복되며 홍수 조절과 수질 관리의 중요성도 한층 커지고 있다. 대덕라이프 편집자는 손동완 K-water 대청댐지사장을 만나 깨끗한 물 관리의 중요성과 지역 상생 협력 방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편집자주>

### Q 대청댐 지사의 관할지역과 담당업무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신다면?

대청댐은 1980년 준공 이후 대전과 충남·충북 지역 지자체에 연간 약 16억 4900만 톤의 생활·공업 용수와 2억 4000만 kWh의 전력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간 15만 명 이상의 시민이 찾는 대덕구의 대표적인 관광 명소이기도 합니다. 대청댐지사는 댐 운영 전반을 총괄하며, ▲댐 시설 및 수질 관리 ▲댐 주변 지역 주민 지원사업 ▲국유지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맑고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 Q 오랜 기간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한 외길을 걸어오셨다. 물에 대한 본인만의 소신을 말씀해 주신다면?

물은 생명과 직결된 가장 중요한 자원인 만큼 ‘깨끗한 물은 모든 삶의 기초’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연의 선물인 물을 책임 있게 관리하고, 미래 세대까지 지속 가능하게 이어가야 할 책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깨끗한 물 공급은 단순한 일상 업무가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지키는 중요한 사명입니다. 물은 단순한 소비 자원이 아니라 사람과 자연이 함께 공존하는 기반이라는 점에서 더욱 소중합니다. 이를 위해 댐 운영과 시설 관리의 철저함은 물론, 수질 보전을 위한 선제 대응과 기술·시스템 개선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Q 2024년 12월 부임 이후 중점적으로 펼치고 있는 사업을 소개해 주신다면?

대청댐지사는 무엇보다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수질 관리와 개선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질을 상시 모니터링하며 오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중심의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매년 발생하는 녹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녹조 플라σμα 기술 등을 적용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댐 시설물의 안전 확보와 유지 관리에도 집중하고 있습니다. 방류수 에너지를 분산시키는 감세공 공사와 발전시설 분해 점검을 통해 시설 안전성을 높이는 한편, 안정적인 물 공급과 탄소 저감형 수력 발전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 Q 직원들과의 원활한 소통 등 활기찬 직장 문화 조성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지 소개해 주신다면?

직원들과의 소통은 조직 운영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한 지시와 보고의 관계가 아니라, 서로 존중하고 협력하는 조직 문화를 만드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직원들과 함께 현장을 직접 찾아가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함께 논의하며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기 계발과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한 기회를 적극 지원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하도록 유연

근무제와 휴가 사용을 장려하는 등 열린 조직 문화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 Q 대전시와 대덕구 등 지역사회를 위한 기부 및 봉사 등 사회 공헌활동 대표적 사례 몇 가지만 말씀해 주신다면?

대청댐지사는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대전시 청각·언어장애 청소년의 심리·정서적 안정을 돕는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으며, 매년 대청댐 정화 활동을 통해 지역 주민들과 함께 쓰레기를 수거하며 깨끗한 수자원 보호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단순한 봉사를 넘어 지역사회와 소통하며 신뢰를 쌓는 중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 Q 개인적으로 대덕구에 대한 느낌을 말씀해 주신다면?

대덕구에 위치한 K-water 본사에서 18년, 대청댐 지사에서 1년 등 총 19년간 근무하며 대덕구는 어느 지역보다 편안하고 친근한 곳으로 느껴집니다. 계족산과 금강로하스공원 등 자연과 함께 휴식을 누릴 수 있는 공간이 많아 가족들과 자주 방문하고 있습니다.

### Q 끝으로 대전 시민 및 대덕구민들의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저희가 공급하는 물은 단순한 ‘마시는 물’을 넘어 시민 여러분의 건강과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환경 보호와 수질 관리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깨끗한 물을 미래 세대까지 이어가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앞으로도 시민들과의 소통을 바탕으로 더 나은 물 관리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필드 위에서 공동체를 키운다 대덕축구협회

33년 역사 품은 대덕구축구협회, 생활체육으로 지역 화합 이끌어  
13개 클럽·781명 회원 활동... 남녀·나이 아우르는 탄탄한 네트워크  
오영호 회장 “축구의 팀워크처럼, 배려와 협력의 지역사회 만들 것”

오영호  
대덕구축구협회 회장



SBS 예능프로그램 ‘골 때리는 그녀들’이 꾸준한 인기를 얻으며 축구에 대한 관심이 전 세대로 확산되고 있다. 화려한 골 장면이 주는 짜릿함도 있지만, 무엇보다 축구가 지닌 팀워크와 협력의 가치가 시청자들의 공감을 얻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축구의 본질적 매력을 일상 속에서 실천하며, 건강한 지역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있는 단체가 대덕구에 있다.

1993년 2월 설립된 대덕구축구협회는 올해로 만 33년의 역사를 이어오고 있다. 2026년 1월 말 기준 ▲소울60축구회 ▲오정축구회 ▲비래축구회 등 남성 12개 클럽과 ▲보라미여성축구단 등 총 13개 클럽, 781명의 회원이 활동 중이다. 이들은 축구를 매개로 세대와 성별을 아우르며 생활체육 활성화와 지역 화합을 이끌고 있다.

초등학교 4학년 시절부터 고등학교 졸업까지 축구선수로 활약하며 축구와 깊은 인연을 맺어온 오영호 회장은 2025년 1월 제12대 회장으로 취임했다. 제11대 이승용 회장 재임 당시 수석부회장으로 협회를 보좌해온 그는 “대덕구 축구 동호인들의 화합과 생활체육 활성화라는 본래의 목적에 충실한 동시에,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전하는 단체로 거듭나고 싶습니다”고 포부를 밝혔다.

대덕구축구협회는 각 클럽이 연합한 조직으로, 매년 대덕구축구협회장기·대덕구청장기 등 구 단위 대회와 대전시축구협회 주최 시 대회에 참가하고 있다. 특히 시 전체 대회는 자치구별 출전권이 제한돼 있어, 꾸준한 훈련과 팀워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오 회장은 “과거 ‘조기축구회의 꽃은 회식’이라는 말이 있었지만, 이제는 경기력 향상과 체계적인 훈련이 중심이 되는 문화로 바뀌고 있습니다. 각 클럽이 주말마다 체력과 기술 훈련에 집중하며 건강한 스포츠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지요”라고 설명했다.

협회의 또 다른 강점은 연령대별 상비군 체제다. 40대·50대·60대 상비군은 매주 화요일 목상동 을미기축구장에서 정기 훈련을 진행하며, 꾸준한 연습을 통해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다. 실제로 협회 소속 위너스타축구회는 제32회 대전시장기 동호인축구대회에서 2030·4050대부 동반 우승을 차지했고, 전국 대회에서도 준우승을 기록하며 실력을

입증했다.

여성 축구의 자부심인 보라미여성축구단 역시 대덕구축구협회의 큰 자랑이다. 2003년 창단 이후 20여 년간 전국 대회에서 꾸준한 입상 실적을 올리며 전국적 강팀으로 자리매김했다.

오 회장은 회원 복지와 인프라 개선에도 힘을 쏟고 있다. 지난 1월에는 S&K병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회원들의 건강관리와 스포츠 손상 예방·치료를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현재 대덕구에는 을미기축구장 1곳만 있어 훈련 공간이 부족한 실정입니다”라며 “행정기관과 협력해 단계적으로 축구 인프라 확충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축구를 넘어 지역사회 기여에도 적극적이다.

협회는 지난해 연말 이웃사랑 성금 모금 및 기탁을 시작으로, 이를 매년 이어갈 계획이다. 또한 올해부터 지역 유소년 축구선수 2명을 선발해 연 2회 장학금을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오 회장은 “유·청소년 시절 선수로 활동하며 겪었던 어려움을 잘 알기에, 장학금 지원은 사비를 들여서라도 반드시 실천하겠습니다”고 강조했다.

오영호 회장은 끝으로 “축구공 하나로 11명의 선수가 하나가 되는 것이 축구의 가장 큰 매력”이라며 “대덕구축구협회가 배려와 협력이 살아 있는 따뜻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길 바랍니다”고 말했다.

이어 “대덕구축구협회는 언제나 구민들에게 열려 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덧붙였다.



## 2026년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 참여자 모집 안내



**접수기간** 2026. 3. 16.(월) 9:00 ~ 3. 26.(목) 18:00  
**참여대상** 본인 명의의 비사업용 12인승 이하 승용 및 승합차 / 선착순 총 793대  
 ※친환경자동차(전기, 수소, 하이브리드) 및 영업용 자동차 제외  
**참여방법** 탄소중립포인트자동차 누리집(<https://car.cpoint.or.kr>) 가입 및 증빙자료 제출  
**인센티브** 참여 기간 감축한 주행거리에 따라 오는 12월 2~10만원 차등 지급

문의 대덕구 환경과(☎042-608-6817)

##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안내

**접수기간** 2026. 2. 1. ~ 10. 31.  
**접수방법** 슬레이트 처리지원 신청서를 작성해 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  
**지원대상** 대덕구 지역 슬레이트 건축물  
 - 철거·처리 : 29동(주택 26, 비주택 3) - 지붕개량 : 8동(주택)  
**지원범위 및 금액**  
 - 주택 철거·처리: (취약계층) 1동당 전액지원 (일반가구) 1동당 최대 700만원 한도내 지원  
 - 소규모 창고·축사·노인 및 어린이시설 철거·처리  
 · 1동당 슬레이트 철거 면적 200㎡ 이하 지원  
 - 주택 지붕개량  
 · 취약계층: 1동당 100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  
 · 일반가구: 1동당 최대 50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  
 ※ 예산 소진시까지 지원 가능하며, 구에서 공사업자를 직접 선정하여 추진

문의 대덕구 환경과(☎042-608-6821)

## 대덕구여성합창단 신규단원 모집 안내



**접수기간** 2026. 2. 11.(수) ~ 3. 11.(수)  
**접수장소** 대덕구청 2층 문화관광체육과  
**응모자격** 대덕구에 거주하는 20세 이상 여성  
**응모요령** 응시원서, 사진2매, 주민등록초본 제출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심사방법** 실기(자유곡 1곡-심사 당일 악보 지참) 및 면접  
**실기 및 면접** 2026. 3. 16.(월) 10:00 송촌동행정복지센터 지하1층  
**합창단 활동** 정기연습 매주 월·목 10:00~12:00(송촌동행정복지센터, 대덕문화예관) / 정기연주회, 힐링음악회, 구 행사 찬조 공연 등

문의 대덕구 문화관광체육과(☎042-608-6575)

## 대청문화전시관 상반기 도자기체험 수강생 공고



**체험 시기** 2026년 4월 ~ 6월  
**체험 대상** 대덕구 거주 성인(선착순 화요일 25명, 목요일 25명)  
**체험 시간** 매주 화요일, 목요일 오전 10시~12시  
**체험 내용** 생활 도자기  
**체험 장소** 대청문화전시관 3층 체험실 (대전시 대덕구 대청로 607)  
**신청 방법** 전화 신청(☎042 932-0311, 010-3473-2026)  
**수 강 료** 무료  
**재 료 비** 월 10,000원 (2kg, 무료 가마 소성)  
 ※ 전화 연결이 안 될 경우 핸드폰으로 신청 문자 남겨주시면 연락 드리겠습니다

문의 대덕구 시설관리사업소 대청문화전시관(☎042-608-5577)

### 2026년 국민연금 개혁 Q&A

## “나도 지원 대상이 될까?”

**Q1. 저도 지역가입자인데 보험료 지원 대상이 될까요?**  
 A1. 재산·소득요건\*을 충족하는 기준소득월액 80만원 미만의 지역가입자는 최대 12개월, 월보험료의 50%(최대 37,950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재산 6억 미만, 종합소득 1,680만원 미만

**Q2. 2026년부터 국민연금이 어떻게 개편되었나요?**

|       | 개편 전 → 개편 후                    | 선택형 돌봄                |
|-------|--------------------------------|-----------------------|
| 보험료율  | 9% → 2026년 9.5% (매년 0.5%p 인상)  | 2033년까지 13%           |
| 소득대체율 | 41.5% → 43%                    | 2026.1.1.이후 가입기간부터 적용 |
| 국가책임  | 선언적 규정 → 지급보장 명문화              | 국민연금법 제3조의2에 명시       |
| 크레딧제도 | 둘째아이 부터 적용 → 출산, 군복무 (12개월) 확대 | 첫째아이부터 적용 및 상한폐지      |
| 보험료지원 | 납부재개 시 → 저소득 지역가입자 (80만원 미만)   | 지원대상 확대               |

**Q3. 소득대체율을 43%로 올려서 장년층만 유리한 것 아닌가요?**  
 A3. 2026.1.1.부터 연금받는 분들에게 43%로 적용해드리는 것이 아니고, 2026.1.1. 이후 연금보험료 납부분부터 소득대체율 43%로 적용하기 때문에 장년층에 더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소급×)

## 2026년 박세계 독서하기



독서의 꽃을 피우는 시간, 리딩 블라썸(Reading Blossom)

벚꽃 아래 책 읽고, 꽃 피우고!

대청공원에서 즐기는 우리 가족 북캠핑x북피크닉

**일 시** 4. 11.(토) 11:30~17:30  
**장 소** 금강로하스대청공원 중앙광장 (대덕구 미호동)  
**대 상** 어린이 가족 40팀(2~4인)  
 \*6세 이상 권장 \*대덕구민(거주자, 직장인, 학생 등) 우선  
**내 용** 벚꽃 아래 자유로운 독서와 사색, 다채로운 책놀이를 통해 독서의 꽃을 피우는 가족형 독서문화행사

**주요 프로그램**  
 [공연] 꽃처럼 흩날리는 버블드래곤의 'Fun & Bubble' 쇼  
 [독서] 벚꽃 아래 유유자적한 우리 가족 노마드 북캠핑  
 [강연] 김경희 작가와 함께 웃는 '관찰아저씨' 이야기  
 [체험] 그림책이 작품으로! 손끝에서 피어나는 도서 연계 체험  
 [강연] 이현아 작가와 나누는 '우리 가족 마음 잇기' 토크

**참가비** 팀당 3만원 \*노쇼 방지용, 웰컴 키트(간식, 체험)

**신청기간** 3. 9.(월) ~ 4. 5.(일)

**신청방법** QR코드 접속 후 참가비 입금

문의 대덕구 석봉도서관(☎042-608-6282)

